

<보고서>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발칸반도 / 동유럽 국가들의 인문, 자연환경

2013년 1월7일- 2월2일

고창초등학교 (직급) 교사 (성명) 류제열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발칸반도 / 동유럽 국가들의 인문, 자연환경

2. 연수목적

집단 학살과 내전의 역사를 지닌 발칸반도 국가들과 동유럽 각국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함.

3. 연 수 국 : 불가리아,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마케도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동부 독일.

4. 연수일정 : 2013년 1월 7일~ 2월 2 일 (26일간)

5. 연수기관및 방문지

불가리아 (소피아, 릴라): 릴라 사원, 알렉산더 네프스키 성당

마케도니아 (스코피에) : 올드 바자르 구역

코소보 (프리슈티나) : 재래시장과 인문학 박물관

몬테네그로 (코토르) : 올드 시티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 올드 시티 (시티 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 사라예보) : 스타리모스트, 튜넬 뮤지엄

스르비아 (베오그라드) : 칼레메그단 요새, 제문

헝가리 (부다페스트) : 마자르 농업박물관, 부다 성

체코 (프라하) : 바츨라프 광장(프라하의 봄)

오스트리아 (비엔나) : 쇤브룬 궁전, 아르누보 박물관

독일 (드레스덴, 베를린) : 썬빙글, 브란덴부르크 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6. 주요활동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 답사 기록 작성

7. 연수의 효과

하나의 나라였던 발칸반도 국가들이 내전을 통해 서로 학살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속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졌음

차례

1. 여행의 발단	1
2. 불가리아 소피아	2
3. 마케도니아의 스코피에	6
4. 코소보 프리슈티나	9
5. 몬테네그로 코토르	11
6.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13
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 사라예보	16
8. 스르비아 베오그라드	20
9. 오스트리아 비엔나	23
10. 체코 프라하	25
11. 독일 드레스덴	27
12.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	29

1. 여행의 발단

언론인 이종현씨가 지은 책이 있다.

‘낭만의 길, 야만의 길’

낭만과 야만은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성에 따르지 않고 생물적인 본성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로 멧을 구가하는 것이 낭만이라면, 역시 규범에 지배받지 않고 인간으로서가 아닌 근본적 생물 본능을 극대화 시키는 일이 야만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크 투어리즘을 소개한다. 학살의 역사를 따라 가는 여행. 마침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어느 곳으로 여행할지 정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 책의 내용에 따라 발칸반도와 동유럽의 학살의 장소를 돌아보고 역사적인 의미를 새겨 보기로 했다.

우린, 6백만의 유대인을 인종 청소했던 나치는 기억한다. 하지만 동시대에 나치와 유사한 크로아티아 파시스트들이 자행한 39만명에 달하는 보스니아인 학살은 잘 모른다. 92년 세르비아계에 의해 2만명의 크로아티아 인들이 학살된 일, 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에 의해 50여만명의 투치족이 집단 학살되었던 일, 95년 세르비아군에 의해 8천여명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일, 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에 의해 자행된 1만여명의 코소보인에 대한 학살과 집단 강간 같은 일은 잘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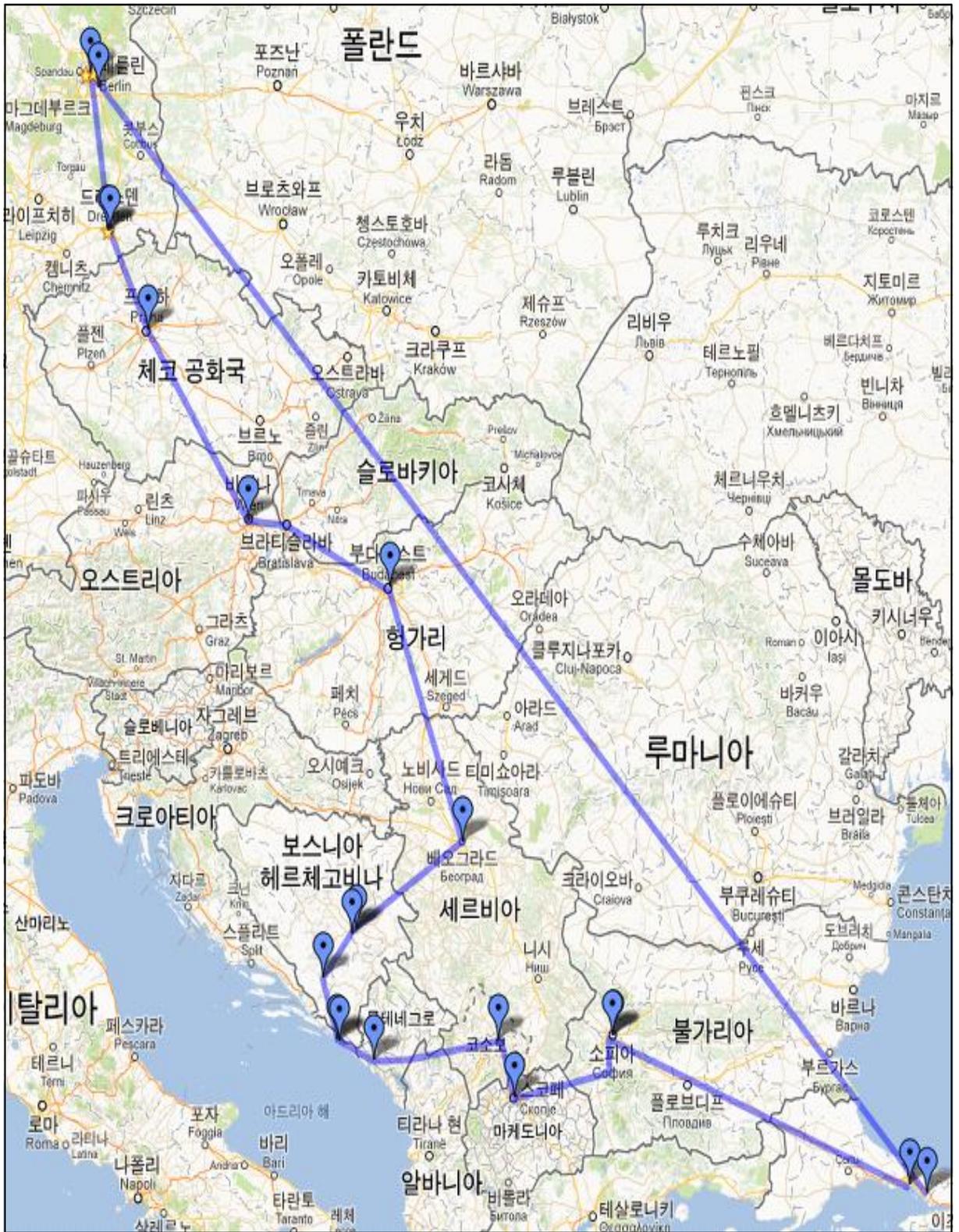
그 학살의 역사에 우리나라라고 빠질까. 47~54년에 걸쳐 제주에서 14000여명을 학살한 (4.3특별법) 한국 정부,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양민학살에 나섰던 한국군, 80년 광주에서 600여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한 (5.18기념재단) 신군부.

그러나 지구상 여러 학살의 가해자는 많지만 사과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아니, 사과는 커녕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에게 멧멧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해자가 낯날 세우고 다니는 일이 허다하다. 실제 발칸반도에서도 학살의 주범인 세르비아계는 이후 국제사회의 극심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지금도 힘을 가지고 계속 발칸반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4.3항쟁과 베트남전, 광주에서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대뜸 빨갱이 아니냐고 되묻는 일이 흔하다. 역사에서 가해자는 희생자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나는 학살이 오래 전 과거의 일, 미개한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그것도 90년대 말에 자행되었던 학살의 경험, 사과하지 않는 그들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두려워진다.

“광기의 학살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갈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행 노정



2. 불가리아 소피아

기차 고장

9일 밤 10시에 이스탄불을 출발한 열차는 에디르네를 거쳐 국경마을에 도착한 것이 5시.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여권검사 등등 출국과 입국에 각각 1시간씩 걸렸고 주행 중에도 고속열차를 앞으로 보내주는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멈춰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 부쿠레슈티 가는 열차를 연결시켜주러 멀리 불가리아 북쪽의 스타라 자고라에도 갔다 오는 등 여행자의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 같은 열차다. 플로브디브를 지나면서 속력을 좀 내나 싶더니 매캐한 냄새가 객실에 스며든다. 이번 아마도 브레이크 패드가 타는 냄새 같은데? 열차 브레이크 에어 소리가 피식피식 나는데 멈추지 않는 걸 보니 큰 문제는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열차는 멈춰 섰고 하릴없이 기다렸다.

"내가 차장에게 알아보고 올게."

알아보니 역시나 열차고장이란다. 언제 갈 지 모르겠다네. 오늘 중으로 소피아에 들어가기는 할 지.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 ”

소피아역, 소피아의 첫인상

소피아역으로 진입하는 풍경이 황량하다. 부서진 열차와 건물을 보수하지 않고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역 바로 옆 건물은 사설버스 스탠드와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이다. 국내외 버스회사가 밀집해 있어 사방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심지어 흑해 연안의 바르사부터 유럽 북쪽의 함부르크까지.

역에서 나와 대로를 따라 걸었다. 어두운 대로 주변 사방에 카지노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첫인상. 대로를 따라 300여m를 걸어 내려오자 변화가가 시작되었다. 숙소로 정한 나이팅게일 호텔까진 아직 거리가 좀 있다. 대로 따라 몇 백 미터를 더 가니 과거에 유명했다는 춤 백화점이 왼쪽으로 보인다. 백화점 건물은 절대군주시절의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형식. 백화점이 자리한 거리 역시 같은 풍의 너른 도로다.

나이팅게일 호텔

지도 상 호텔이 있다는 지점에 갔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 근처를 서성대니, "두유 룩킹포 호텔?" 한 청년이 묻는다.

"에스 위어 루킹 포 나이팅게일 호스텔"

청년이 알려준 건 주차장처럼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 거기에 조그맣게 호스텔의 간판이 있다. 문 열고 들어가니 201호 우편함에 나이팅게일호스텔이라 적혀 있는데 2층엔 아무표시가 없다. 이곳은 아마 러시아나 몽골처럼 건물 한켠을 빌려 호스텔을 운영하는 모양. 어쩔까 다시 망설이는데 또 다른 청년이 계단을 올라가더니 나이팅게일 호스텔 갈 거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 같이 올라가겠다. 두 층 더 올라가니 나이팅게일호스텔 간판이 보인다. 이 청년은 호스텔 위층집 청년.

문 열고 들어가니 주인 미카엘이 반기며 악수를 청한다.

"위 디든 메익 레저베이션 이즈 잇 오케이?"

"노 프라블럼. 유 원 프라이빗 룸?"

욕실 딸린 더블룸이 45레바, 욕실 안딸린 트윈룸은 40레바다. 1유로가 대강 2레바니까 욕실딸린 방 값은 3만원정도. 괜찮다. 주방도 쓸 수 있고 화장실도 매우 깨끗하고 좋다.

릴라사원

스태프에게 릴라 사원 가는 길을 물었다.

"릴라 가려면 센트랄 버스 터미널 가면 돼?"

"쉬워. 트램길 따라 가다가 저기 사자상 있는 건물에서 트램 5번타고 11정거장 가면 돼. 거기 오브차쿠펠 터미널에 가면 있어."

법원 앞에서 트램이 어디 서는지 잠깐 헤메다 찾았다. 트램에 올라 운전기사 뒤에 마련된 티켓발권기에 1레바 넣으니 티켓이 찍 나왔다. 숙소 스태프인 싸샤가 11정거장이라기에 정거장을 세며 갔다. 방송소리도 들어 봤다. 썬라..콤플렉스 히포드롬 ... 하는 말이 들렸다. 지도를 찻싸게 꺼내 위치를 확인해본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주변 청년에게 물었다.

"릴라 가는 버스정류장은 어디서 내려요?"

"다음 정거장이예요."

그런 뒤 우리가 내릴 때 한번 더 방향을 가르쳐준다. 친절하기도 하지.

터미널 티켓부스에서 릴라가는 표를 물으니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소피아...프맨...릴라.. 뭐라뭐라하며 쪽지에 내용을 써주셨다.

여기서 10:20 출발, 13:00도착, 릴라에서 3시 출발, 소피아 5:30 도착.

릴라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다. 난 여기에 왜 가는 걸까?

차만 타면 이내 졸린다. 저녁에 잠을 잘 못잔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행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고갈 때문이다. 난 오늘까지도 이번 여행을 왜 왔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그냥 관성적으로, 한 번은 가 봐야 할 것 같기에 여기에 온 것 같다.

마눌님 경아는 나와 다르다. 여행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 있고 흥미진진하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편. 새로운 여행지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도 유지한다.

우리가 탄 소형버스의 앞쪽에 슬라브 국가 중 한곳에서 온 듯한 처자 둘이 탔다. 불가리아어도 잘 통하고 들은 내용을 우리에게 영어로 친절히 전해 주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들. 뒤에서 보는 그 둘의 모습은 여행을 처음 했을 때 처럼 호기심 가득 차 눈에 보이는 갖가지 것들을 담고자 발랑하게 움직인다. 내가 잃어버린 모습.

"당신이 늙은 거야." 마눌님의 일침.

그렇다. 이건 분명 의식의 노화현상.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감정노동 상황을 이성적으로 끌어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을 통제한 결과,

그만, 무뎌져 버렸다. 이게 바로 노화라면 노화다.

눈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miracle임을 알고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라고 했거늘, 종종 의식의 노화상태인 미망에 빠진다.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아.

릴라 수도원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마을에 섰다. 20분 기다려 릴라수도원 가는 버스로 갈아탔는데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은 차비를 안낸다. 마을에서 새로 탄 사람들은 다 내고 타는데. 뭘일인지 궁금했지만 물어 볼 용기가 안났다.

“저 처자한테 물어 봐. 당신의 틀을 벗어나서.”

“디쥬 페이 더 버스 피?”

“위 올레디 페이드. 옛 더 블루 윈.”

처자의 명쾌한 대답. 우리가 소피아에서 타고 온 차에서 이미 냈다는 이야기. 맞다! 아까 버스비 11레바 낼 때 웬지 10레바짜리 표 하나, 1.10레바짜리 표 하나 해서 두 장을 끊어 주더라니.

릴라 사원 올라가는 길에선 점점 눈이 많이 오고 있다. 미니버스 운전자 아저씨는 능숙하게 빠른 속

도로 올라가고 있다. 30여분 정도 올라가는 길. 어쩌면 강원도 오대산 중의 사찰에 찾아가는 길 같기도 하다. 올라가는 동안엔 몸과 마음 모두 다 조금 더 깨어 있도록 집중했더니 좀 낫다.

릴라사원 앞에선 소형 불도저가 눈을 계속 치우고 있다. 무척 춥다. 사원을 느껴보기보다 먼저 추위가 엄습한다. 메쉬 재질 신발 앞쪽으로 눈 물이 들어왔는지 발가락이 어는 느낌이다. 마늘님이 자기가 신고 있던 수면양말을 내게 주어 좀 낫긴 했지만 한번 얼어버린 발가락이 쉬 돌아오지 않는다.

사원 중앙의 교회에 갔다. 교회 외벽엔 불교의 사원처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하늘나라와 지옥의 대비, 악마의 속삭임과 그 꼬임에 빠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뱀들, 악마가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유혹하는 장면 등등. 조금은 유치한 듯 하지만 당시의 무식자들을 교화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하지만 저 유치한 설정들이 현대 기독교에 까지 이어져 악마의 이미지를 그와 같이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

실제 악마가 저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뿔에 박쥐의 날개에 새의 부리를 가지고 회색 몸체에 사자의 꼬리를 가졌다고 믿는 분들이 계셔서다.

악마가 악마처럼 모습을 하고 있으면 누가 악마의 꼬임에 빠질까? 진정 악마는 우리가 그의 꼬임에 빠지는 줄도 모르게, 그의 논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수도원 2~3층으로 올라간 이들이 있어 우리도 따라 올라갔더니 안내하시는 듯한 분이 몸짓으로 뮤지엄에서 표를 끊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만 하다 내려왔다.

알렉산더 네프스키 성당

스코피에 가는 차표를 끊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프스키성당이나 보자고 발걸음을 돌렸다. 춤 백화점 뒤편으로 여러 개의 국가기관, 박물관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건물들이 세워진 가운데 길은 벽돌포장길. 길가 건물들의 규모는 웅장, 압도. 이게 불가리아 왕국의 호화로움인가?

네프스키 성당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특히 인상적인 건 출입문들 위에 나타난 모자이크화들. 모자이크로 섬세하게 표현된 생동감 넘치는 표정이 아름다웠다. 다른 곳에선 성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면 네프스키성당의 모자이크 이콘은 나타난 성인들의 감정까지 엿보게 해 준달까.

3. 마케도니아의 스코피에

소피아에서 스코피에 가는길

맛푸사의 버스는 딱 우리 90년대 고속버스같다. 버스는 큰데 좌석은 비교적 좁다. 다섯 시간 정도 가는 거니 큰 문제는 없겠지. 하지만 가는 동안 잠을 자기엔 무척 불편했다. 45인승 버스에 탄 사람은 15명정도. 자리가 널널하다. 겨울이라서 예약하는 건 전혀 필요 없겠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짐 값을 받는다는 거다. 짐표는 0.5유로 정도인데 출발에 임박해 동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히 수퍼로 가서 샀던 치즈 하나를 사정 사정 환불하여 지불했다. 이거, 미리 준비 않으면 낭패다.

두시간 반쯤 달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국경에 도착했다. 먼저 불가리아 출국 절차로 모두 내려 짐 검사를 간단히 하고 다시 탄 뒤 조금가다 섰다. 불가리아 국경경찰이 들어와 여권을 걷어갔다 20여분 뒤에 도장 찍어 돌려줬다.

다시 차 타고 줄 서서 마케도니아 입국장. 우리 앞에 네 대 정도의 승용차가 보였다. 차 트렁크 열고 짐 검사를 충분히 한 뒤 여권을 보고 입국심사를 한다. 한참 기다려 우리 버스 차레가 와 국경경찰이 버스에 올랐다. 눈매가 온화하고도 매서운 여경찰. 마치 신전의 여사제같은 분위기다. 여권을 걷어가서 얼마간 기다렸지만 짐 검사는 안한다. 우리 버스의 기사가 무척 서글서글 유들유들하여 절차를 많이 간략하게 만들어주는 듯 하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게 한 시간정도 걸렸다. 이게 빨리 끝난 경우다. 반대편, 마케도니아에서 불가리아로 들어가는 차량행렬은 200m이상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줄이 거의 없었는데도 한 시간 정도니 마케도니아에서 불가리아로 넘어오려면 상상초월시간이 걸릴텐데.

모든 절차를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넘어온다. 소피아가 고지대라서 그런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다. 눈 덮인 불가리아와 초록이 보이는 마케도니아. 산을 넘으니 날도 개어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듯 차 안이 햇볕으로 포근하다. 마케도니아의 지형 느낌은 높지만 구릉이 형성된 산지다. 터키 그리스 여행 때 테살로니키 주변의 풍광이 이랬는데. 건축물들은 불가리아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다. 시가지 분위기는 뭘지모르게 친근하여 우리나라 시골 마을을 보는 것 같다.

고가도로에 설치된 스코피에 역의 1층은 국제 버스터미널이다. 산티 호스텔은 터미널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있다. 호스텔 근처부터 표지판이 설치된 테다 골목에 들어서니 만나는 이마다 산티호스텔 찾느냐고 물어봐 줘서 무척 쉽게 찾았다.

주말이라선지 독립된 방은 없고 도미토리 침대 두 개를 인당 8유로(480den)에 구했다. 샤워와 욕실이 공동이지만 엄청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 주방은 오븐,전자렌지,토스터 등 조리기구는 물론 조리용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다. 차,커피는 맘대로 타먹을 수 있고. 특히 고마운 건, 숙소 스태프 시내지도와 오늘 하루동안 볼 수있는 포인트를 딱딱 짚어 준 것. 스코피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무작정 온 건데 지도와 설명을 들으니 오늘 하루반나절의 일정이 딱 마련되는 느낌이다.

스코피에

호텔에서 준 지도 한장 달랑 들고 나왔다. 강을 따라 걷는 길이 한가하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책을 파는 이동 부스들. 모두 헌책들이겠지만 책을 파는 부스가 중심가 곳곳에 꽤 많다. 이 곳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만큼 책이 가까운가? 강 따라 5분쯤 가면 중앙광장이다. 알렉산더의 거대한 동상을 가운데 두고 마케도니아의 위인들 동상이 광장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이곳은 아직 공사중이다. 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는 마케도니아와 칠레의 핸드볼경기가 중계되고 있었다. 이십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고 있었고 몇몇은 응원용 머플러도 하고 관전중이다. 우리 핸드볼은 세계 정상급의 기량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데 반해 이곳에선 광장에서 중계하기도 하고 맥주홀 몇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보기도 하니, 거의 우리나라에서의 국대축구경기만큼의 관심을 만나보다.

중앙광장 건너편에서는 정부기관으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한창 공사중이다. 근대왕정시대의 건축물처럼 두껍고 높은 도리아식 기둥을 갖춘 거대건축물들이다. 세금 엄청 들겠는걸. 중앙광장에서 강을 건너는 다리 이름이 돌다리(스톤브릿지)다. 400년대에 처음건축되어 계속 개보수를 거쳐 마지막으로 보수한 것이 몇년 전이다. 그 오랜 다리를 지금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게다가 전차가 지나가도 될 정도로 튼튼한 다리다.

호텔에서 일러준 관광포인트는 몇 군데 정도라서 하루에 돌기에 충분했다. 중앙광장을 시작으로 옛 철도역을 개조한 박물관, 박물관 가는 길에 있는 마더테레사 기념관, 스톤브릿지, 올드바자르 정도.

마더 테레사 기념관(입장료 무료)은 주말휴관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박물관(입장료 무료)은 관람객이 하나도 없는 데다 약간 위험해보이는 청년이 계속 따라다니며 돈을 구걸하는 바람에 서둘러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광장 곳곳에는 재미있는 동상들이 마치 시민들처럼 자리하고 있다. 단조로운 풍경의 소피아 거리와는 달리 재치와 여유가 엿보여서 좋다. 박물관 앞의 노점에서 목걸이를 두 개 샀다. 일종의 점토와 같은 소재로 만들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소용돌이 디자인이 특이해서 구입했다. 두 개에 250den. 원화로로는 대략 6천원정도다.

돌다리를 건너 올드바자르 구역으로 들어갔다. 건축 공사장이 가운데 있어 좁은 골목길로 연결된다. 올드 바자르에 접어들어 조금 멀리 웅장하게 솟은 칼레 요새가 보인다. 바자르 초입은 한적하고 조금은 파장분위기여서 글썽? 했는데 막상 거리에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한 올드타운의 분위기가 한껏 나는 거

리다. 작은 이층집이 거리 양편으로 늘어서 있고 상점들도 작고 고즈넉하다. 거리 바닥은 돌로 포장되어 있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다. 찻집, 식당, 호텔 모두 규모가 작다. 마치 민속촌에 온 것 같지만 엄연히 사람들의 생활공간이다. 한두시간 정도 다니기 알맞을 만큼 적당히 큰 구역이다. 건물들의 이층은 대부분 감감하여 아마 사람이 살지는 않는 것 같다.

라씨라는 인도풍 제목의 찻집 한 군데 들러 에스프레소와 터키 커피 한잔씩 주문했다. 주인장의 친구 처럼 보이는 몇몇이 보드게임을 즐겁게 하고 있고 창가의 두명은 뭔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중이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주인장이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본다. 에스프레소의 향이 기막혀서 커피이름을 물으니 크로아티아의 프랑크 에스프레소란다. 30대로 보이는 주인, 이렇게 작은 구도시 찻집과는 살짝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고 이루지 못한 꿈이 보이는 듯한데, 그 마음 속 꿈을 들여보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 아쉬울 뿐.

나가며 가격을 물으니 80den(2천원)이란다. 이렇게 저렴할 수가.

거리를 걷다가 쌀푸딩이 전시된 과자점이 보여 들어가 푸딩 두 개를 시켰다. 50den. 역시나 엄청 저렴하다. 쌀푸딩은 달콤한 쌀죽맛이고 쌀푸딩인줄 알았던 노란색 푸딩은 달걀을 원료로 한 거였다. 쌀 푸딩은 푹푹하지만 솔직한 맛이었고 계란푸딩은 계란 느낌이 짙으면서도 느끼하지 않을만큼 향을 잡아낸 기술이 뛰어나다. 거리 곳곳에 터키식 케밥과 쿼프테, 숯불구이 소시지를 파는 상점이 있다. 숙소에서 밥과 야채볶음을 먹고 나와서 아쉽지만 시식은 포기했다.

돌다리를 건너 다시 중앙광장. 밤이 되어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트리장식이 불을 밝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 강 따라 숙소로 돌아오는 길.

"인구가 아주 적나봐. 주말인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있고 대부분 한적하네."

숙소 근처 대형쇼핑센터에 들러 보니, 그 생각이 틀렸다.

"스코피에 사람들이 몽땅 여기 있나봐!"

세계 어디에나 있는 특징없는 대형쇼핑센터 안에는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아까 올드바자르 지역의 한적함과는 엄청난 대비다. 대형쇼핑센터의 등장과 구상권의 몰락 과정이 여기서도 현재 진행형.

4. 코소보 프리슈티나

프리슈티나 가는 길

프리슈티나행 9시 버스를 타려고 8시20분경 터미널에 도착했다. 300데나르 정도가 남았기에 유로로 재환전하니 5유로다. 그런데 남은잔돈을 합하니 1유로가 더 될것 같아 환전하여 50센트 동전 두 개를

받았는데 막상 5유로 지폐가 없어진게 아닌가. 잘 생각해 보니 받은 5유로 지폐를 데나르와 섞어서 환전상에게 내민 모양인데 아무 말 않고 그가 챙긴거다. 어쩐지 내게 50센트 두개를 주고도 내가 내민 돈을 싹 가져가지 않고 바라만 보더라니. 내가 등을 돌리자 얼른 챙겼겠지. 멍청한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낸 돈 중에 5유로 없던가요"

그는 단지 몸짓으로 으쓱 했을 뿐. 일차적으로 정신 못 챙긴 나의 탓이고 이차적으로는 5유로에 팔린 그의 싸구려 양심에 의한 일이다.

프리슈티나 가는 버스는 미니버스다. 두시간 거리라서 그런 모양. 코소보 국경에 도착해 먼저 마케도니아 출국 과정을 밟았다. 짐검사는 트렁크를 열어보는 것으로 끝. 여권을 버스기사가 챙겨 갔다가 출국 도장 찍어온 여권을 승객중 한명이 나눠줬다. 교실 반장같이 이름을 부르며 나눠주는 훈훈한 광경. 코소보 입국 역시 형식적인 짐 검사에 빠른 입국과정. 불가리아에서 마케도니아 넘어올 때와는 사뭇 다르다.

코소보로 진입하자 눈에 띄게 눈이 많아지고 날도 흐려진다. 11시 20분에 프리슈티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코토르 가는 차편을 알아보니 포드고리차까지 가는 차가 하루에 한대, 오후7시다. 포드고리차에서 코토르 가는 차로 갈아타야 한다. 이곳서 하루를 묵을까 하다 포기하고 오늘 차표를 끊었다. 돌아볼 곳 몇 군데를 돌기에 시간이 충분했기에.

프리슈티나를 간단히 둘러보았다

버스터미널에서 시내중심부 테레지아 거리까지는 약 1.5km다. 방향감각이 안 잡히길래 길 걷는 처자 돌에게 방향을 확인하고 무작정 걸었다. 버스터미널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중심도로 이름이 빌 클린턴로와 조지 부시로다. 클린턴로를 걷다가 부시로로 접어들면 시내로 가게 되는 셈.

세르비아의 코소보 침공 때 대량학살극에도 미적거리던 미국과 나토가 결국 개입하면서 세르비아를 물러나게 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이끌게 되었기 때문이겠지. 세계 어디서도 환영받는다고는 볼 수없는 미국대통령이지만 이곳에서는 독립의 은인으로 대우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MB처럼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고 개인의 사업 이익을 추구했던, 아프간과 이라크의 침략자 조지부시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환영받는 곳은 아마 이곳 코소보 뿐일걸?

코소보 국립박물관, ethnological 박물관 모두 일요일이라 휴관이다. 5시간 정도가 통짜로 남는다. 박물관 부근 모스크에 들러 잠깐 명상하고 프리슈티나 거리를 이곳저곳 방황한다. PanExpert에서 빵과 커피(에스프레소 더블 0.5e,마끼아토 0.8e)로 잠시 휴식도 하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동네 골목길 대박 빵집에서 빵도 사먹어 보고 일요시장도 기웃거리다 50센트 주고 달콤한 말린 무화과 한타래도 샀다. 우리나라 비해 물가가 많이 싼 편이라 돌아다니는데 비용부담이 참 적다. 에스프레소 더블이 0.5유로, 빵 하나 0.2유로 등등. 화장실비가 무려 0.3유로니까 화장실 갈 일 있으면 카페로 가라는 말일까?

전쟁피해의 상처는 일단 겉보기엔 없다. 거리 곳곳에 있었다던 해방군지도자의 간판도 보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여행기에서 보였던 황량한 느낌도 없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의 옷차림이 무채색, 그것도 진하지 않은 쥐색, 회색일변도라는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 피해의 트라우마가 자신을 돋보이지 않게 하는 옷차림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날이 스멀스멀 추워서 돌아다니다 보니 발가락이 얼 것 같아 가끔씩 슈퍼마켓에 들러 가며 시내를 어슬렁거리다 한시간 전에 터미널에 도착했다.

포드고리차 가는 길

포드고리차 가는 버스엔 십여 명이 타고 간다. 기름 값이나 나올런지. 새벽 3시 도착이라니 8시간 걸리는 여정이다. 포드고리차에서 코토르 가는 첫차는 5시에 있댄다.

두 시간 쯤 되자 버스가 설산을 오른다. 저 멀리 야경이 비행기에서 보는 듯 아련해진다. 조금 올라가다 코소보 출국 검문소에서 형식적인 짐 검사를 하고 출국도장을 받았다. 사람이 많지 않은 나이트버스는 두 자리를 차지하고 가니 열차 못지않게 편안하다. 국경을 넘는 경우 열차보다 더욱 마음이 놓인다. 열차에서는 짐검사나 여권컨트롤이나 모두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데 버스는 함께 가는 사람들과 일괄취급을 받게 되니 확실히 간소해지는 부분이 있다.

오늘 몬테네그로 들어갈 때, 국경경찰이 여권을 가져간 후 좀 있다가 우릴 부른다. 둘 중 하나만 오면 된다 한다.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묻는다

"씨을, 평양?"

"서울"

"사우스, 노쓰?"

"사우스" 하니 자기들끼리 유즈나(南) 뭐라뭐라 한다.

한번 더 평양? 묻길래

"평양 이즈 노스코리아 캡탈시티. 낮 아우어즈." 했다. 무사통과. 코~몬 국경을 넘는 한국인이 이리도 적은건가?

5. 몬테네그로 코토르

코토르로

포드고리차에 2시반에 도착했으니 코토르 가는 첫차시간인 6시까지 꼼짝없이 대합실에서 스탠바이 했다. 배낭을 누가 집어갈 수도 있으니 발에 걸었다. 3시간여 동안 잠 못자고 비실거리다 6시첫차타고 코토르로 이동했다. 코토르 가는 길은 내륙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지만 버스는 남으로 스카다 호수를 지나 아드리아 해 연안을 따라 올라갔다. 아드리아 해가 보일 때쯤 어스름 동이 터 온다. 오늘은 날이 흐리다.

Adria해에 접어들면서 이제서야 여행을 시작 하는 것 같았다. 좀 더 재밌게 좀 더 심각하지 않게 뒤로 주춤거리지 않고 여행을 즐겨 봐야지.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는 아드리아해. 아직 빛이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험준한 그렇지만 너무나 멋진 산 들이 도로 양옆으로 펼쳐졌다. 풍경이 멋진 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법. 사람 살기엔 별 풍경 볼 것 없이 푸르고 너른 대지가 최고다. 옛날 같으면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고 버려질 수많은 곳들이 지금은 명승지 유명 관광지 라고 한다.

코토르에 도착한것은 잠깐 잠이 든 뒤였다. 어딘지도 모르게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기에 버스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하는지 망설이다 무작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발을 돌렸다 어정쩡하니 차도에 있다가 아저씨 한분에게 길을 물으니 일단, 차도에 있으면 있으면 위험하다고 우릴 불러 세운다.

"더 카 히어 이즈 크레이지. 비 케어풀"

이 분의 소개로 코토르 아파트먼트란 곳에 짐을 풀었다. 멋지게 리뉴얼된 방과 거실이 있는 숙소다. 소개해 준 분이 내장페인트칠을 맡았다 한다. 얼핏 보기에 비쌀 것 같았는데 주인이 35유로라기에 흥정 없이 그냥 다 드렸다. 우리를 안내한 분은 소개만 해 주고 헤어졌다. 숙소에 이른 시각에 들어가니 마음이 엄청 편하다.

코토르

코토르 올드타운 주변을 둘러보기로 하고 타운을 빠져 나가 다리를 건넜다. 깎아지른 산 사이로 흘러 내린 수량이 엄청난 흐름을 만들며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물은 깊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다. 바람이 무척 세지만 기온이 낮지 않아 견딜 만하다.

베네치아 지배하에 건설된 도시기에 이탈리아 풍의 건축물들이 많고 바닥과 벽을 만든 돌들이 매우 훌륭하다. 이런 색돌들을 바닥에 배치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썼겠구나. 그만큼 오래 갔고 지금도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쓰기에 부족함 없는 것이겠지.

숙소에서 쉬다 3시쯤 뒷산에 이어진 산성에 오른다. 우리 나라의 산성처럼 산등성이따라 꼭대기로 이어진다. 모두 돌계단으로 마련되어 있다. 오를 수록 풍경이 아름답고 멀리 호수같이 펼쳐진 바다와 가파른 산들의 모습이 비현실적이다. 코토르 연안은 아드리아해에서 깊이 내륙쪽으로 해안이 들어 와 있는데 최남단 피요르드라고 한다. 그래선지 바다와 직면한 산들이 절벽에 가깝고 엄청나게 높다. 1/3 정도 올라 성당이 있다. 잠깐 쉬는데 남쪽에서부터 거대한 비구름이 몰려 오면서 코토르 연안에 비를 뿌린다. 비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장관이지만 아쉽게도 사진에 담기지는 않는다. 비를 조금씩 피하면서 성곽을 올랐는데도 엄청 비를 맞았다. 정상 가까이 갔을 때 빗줄기가 세어졌고 성곽의 문처럼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을만한 곳을 찾으며 정상에 올랐다.

비가 어느 정도 물러가고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을 들으며 내려왔다. 날씨가 갠 했지만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허락해 준 산에 감사한다.

6.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두브로브니크로 이동

코토르에서 비 맞으며 산성을 오를 것 때문일까? 감기 기운이 몸을 감싸고 돌았다. 다행히 두브로브니크 가는 버스 안에서 목을 의자 깊숙이 묻고 잠을 청하면서 몸이 조금씩 나아지다가 두브로브니크 도착할 때 쯤 거의 회복되었다. 코토르에서 두브로브니크가는 길의 초입은 병풍처럼 산에 둘러싸인 피요르드의 해안으로 되어 있고 길은 피요르드의 맨 아래쪽을 따라 나 있다. 결국 거대한 꽃잎모양처럼 길이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 시간을 달려도 그 전에 지나왔던 길이 건너편 해안에 보인다. 다리를 놓아 확확 건너가는 우리와 달리 자연의 모습을 불편해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태도가 이곳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었겠지.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 국경을 지나는 건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무척 간단했다. 예전에 같은 나라였기에 그런 걸까? 3시간 정도를 달려 멀리 두브로브니크 성곽이 보였다. 버스도로는 산 중턱에 있기에 일단 지나쳤다가 스플리트로 가는 다리 앞에서 크게 P턴하여 시내로 진입할 쯤 터미널이 나왔다. 터미널 위치가 미리 검색했던 것과 다르다.

실바 아주머니네 숙소

론리를 들고 할아버지와 중년여성이 말을 걸었다.

"우리 집에 묵어볼래요? 론리에도 나왔고 25유로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솔깃했다. 그분께 지도를 보여 주고 현재 위치를 살피니 역시 버스터미널이 원래 있던 자리보다 좀 더 외곽으로 옮겨져 있다. 숙소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관광포인트에 있구요 리조트지역이에요"

지도를 짚어주는데 생각보다 올드타운에서 멀다. 한 4km정도?

"올드타운쪽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좀 먼데요?"

"집에서 잠깐만 나가면 올드타운 가는버스가 5분마다 와요. 일단 집을 보고 결정해도 되요. 보는 것뿐이에요. 의무감 필요없으니 일단 봐요."

괜찮겠다 싶었다. 버스로 갈 수 있으면 뭐가 문제? 게다가 올인원 아파트가 25유로니까.

아주머니 차에 짐 싣고 출발하려는데 아까 론리들고 왔었던 할아버지가 거기 집 정말 좋다고 엄지를 들어 보인다.

차로 잠깐 달려 숙소로 도착하니 입이 딱 벌어진다. 그냥 24평 정도의 독채다. 총 3층집의 1층 전체를 쓴다. 주방시설부터 세탁기까지 완비된 완벽한 숙소. 냉큼 결정하고 짐을 풀었다. 아주머니께 구시가 가는 법과 성곽 위쪽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에 대해 들었다. 숙소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가는 방법이 특이하다. 숙소가 있는 길의 아래쪽에 있는 호텔 Kompas의 옥상으로 들어가 계단을 내려가 로비(9층)를 지나고 한 층 더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간 뒤 호텔 테라스로 나간다. 투숙객도 아닌데 이래도 되나 싶지만 아주머니가 워낙 당연한 듯이 말씀 하시길래... 역시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다. 저녁에 장 본거 두 손에 바리바리 들고 거꾸로 엘리베이터를 올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다. 좀 미안하긴 했다.

두브로브니크

시내 버스 한 번 타는데 15kn. 엄청나게 비싸다. 정류장에 있는 부스에서 표를 끊으면 12kn다. 이 역시 엄청 비싸다. 둘이서 4km정도 되는 구 시가지에만 갔다 와도 우리 돈 만원이다. 너무 비싸서 혹시 정해진 시간 내에 환승은 되는지 물었더니 원타임이란다. 이렇게 대중교통비가 비싼 곳은 영국 이후로 처음이다.

구 시가지는 엄청나게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여있다. 가장 높은 벽은 25m. 성 안의 건축물 역시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 중심도로의 바닥은 매끈한 돌길이고 성당과 관공서, 공동우물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기한 점은 중심에서 일정 범위의 구역까지는 평지에 거리가 만들어져 있지만 더욱 외곽으로 퍼져갈수록 건물이 언덕위로 점점 높은 위치에 지어져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콜로세움과 유사한 구조가 된다는 점이다. 콜로세움 내부의 관객 석마다 사람대신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런지. 그러다 보니 외 성벽의 높이가 20여미터가 넘도록 높아지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외 성벽 가까이 사는 집들은 무척 작다. 한 8~9평이나 될런지. 높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인들도 많았다. 차는 물론 카트와 같은 것도 진입할 수없이 가파른 계단 좌우로 집이 있는 곳. 분명 유명한 역사지구이긴 하지만 이런 곳에 부유한 이들이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내려 오다 인부 셋이 벽돌로 쓸 돌들을 힘겹게 하나씩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다. 조금 내려가니 그분들이 돌을 싣고 온 외발수레 세 대가 보였다. 뭐 하나 수리할래도 저렇게 사람의 힘을 써야 할 테니 어떻게들 살고 계실까.

북쪽 성벽을 지나가다가 벽돌인 석회암이 녹아내려 석회동굴과 같은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진 걸 봤다. 빗물이 흘러내리므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광경이지만 흔치는 않은 거다. 북벽 거의 전체에 걸쳐 석회암이 녹아내려 자연 동굴 벽과 같은 신기한 모습을 만들었다. 벽돌의 이음새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아내렸다. 오랜 세월을 한 곳에서 버텨온 건축물에게 자연이 내린 훈장이겠지.

구 시가 북쪽에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이 있다. 언덕 위까지 푸니쿨라(케이블카다)가 마련되어 있지만 일전에 만났던 미숙씨와 선영씨는 케이블카를 타지 말고 올라가 보랬었다. 마침 바람이 거세어 케이블카가 운행을 중단했다네. 걸어 가 보라는 계시였다. 푸니쿨라 출발장소에 있던 동양인 소녀 한명도 푸니쿨라를 기다리다 걸어 올라가기로 한 모양이다. 먼저 언덕의 초입에 형성된 달동네길을 오른다.우리도 따라 올라갔다. 계단이 무척 가파르다. 이 곳 역시 성 안의 외곽지역처럼 차나 카트가 못들어가도록 가파르다. 아드리아해가 탁 트이게 보이는 전망은 일품이지만 사는 사람들은 엄청 힘겨울 것 같다.

달동네가 끝나는 지점에 코토르~스플리트를 잇는 국도가 있다. 두브로브니크 들어올 때 버스로 지나갔던 길. 여기서 본격적인 트레일을 찾지 못해 아까의 그 동양인소녀가 망설이고 있어 이야기를 걸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요 올라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 길은 아무래도 사람이 다닐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가야 할 지 모르겠어요."

맞다. 이 국도변은 사람 다니는 인도가 거의 없다. 아까 푸니쿨라 운행직원 말 대로 가 보자니 위험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직원은 왼쪽으로 가다가 버스정류장 나오는 데서 트레일이 시작된다고 했으니 그대로 가 보기로 했다.

동양인 소녀 이름은 한. 처음 봤을 땐 이곳에 살고 있는 동양인 초 중생인줄 알았다. 150cm정도의 키, 어그 부츠에 솔터백 차림이라 여행자 같지는 않았기에. 우리가 트레일을 먼저 올라가고 한도 따라 오른다. 처음엔 가벼운 산책길이 같것자로 이어지다가 숲이 끝나고 돌투성이 초지가 나온다. 아래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높고 까마득하다. 한은 중간 중간 카메라로 풍경을 담아가며 많이 처지지 않도록 오른다. 날이 흐러지면서 2시 반임에도 어둑어둑해 지고 비가 흩뿌린다. 아무래도 더 올라가기 전에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한은 그 차림에 그 날씨에도 오히려 지난 날보다는 날씨가 좋다면서 꺾끗이 올라간다. 어찌랴. 저 작은 친구도 씩씩하게 올라간다는데. 우리만 내려간다 할 수 있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구름이 휘감아오며 비를 뿌린다. 산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정상외 구조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비가 점점 거세졌지만 올라온 길이 멀어 다시 내려가기도 어쭙찮다. 비바람을 맞다가 등지다가 비에 졸락 젖어 정상에 오르니 방송탑 건물이 있고 자동차 몇 대가 주차해 있다.

'역시 올라 오는 찾길이 있는 것이로구나.'

케이블카 대합실은 아예 문이 잠겨 있고 내전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만 문이 열려 있다. 비가 하도 거세어 박물관 지키는 소년에게 양해를 구해 비를 피해 있었다. 물에 빠진 생쥐 모습... 방송탑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우릴 보고 말을 걸었다.

"두유 고 투 더 타운?" "예스"

"유어 쓰리?" 하면서 차에 타란 손짓을 한다. 천우신조라니. 이 날씨에 언덕을 기어올라온 외국인에 대한 측은지심에서의 배려겠지. 천사같은 분들 덕에 무사히 차를 타고 타운까지 내려왔다.

비는 두브로브니크 있는 동안 아침에만 잠깐 그쳤을 뿐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내렸다. 천등과 번개를 동반한 거센비가 계속되어 누군가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했던 이곳의 자연 환경을 온전히 느껴볼 수는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길을 건너려 할 때마다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기다려 주었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얼굴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맑았으며 언덕 위에서 우리를 도와 준 박물관 지킴이 소년과 방송탑 근무하는 아저씨들, 친절이 몸에 밴 숙소 주인 실바 아주머니 등등. 역사나 자연보다 한층 소중한 사람들의 향기를 받고 간다.

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 사라예보

두브로브니크에서 모스타르로 가는 길 사이에 보스니아 영토를 20km 정도 지나고 다시 크로아티아로 들어온 뒤 얼마간 달리다 보스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무척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다. 버스가 보스니아 국경에 도달하자 크로아티아 국경경찰이 여권을 확인한다. 보스니아 영토를 횡단하여 다시 크로아티아 국경에 도착하니 다시 크로아티아 국경경찰이 여권을 확인한다. 크로아티아 영토를 달려 마지막 막으로 보스니아에 진입하는 국경에서는 먼저 크로아티아 경찰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보스니아 경찰이 따라 들어와 여권을 확인한다. "확인"만 한다. 도장은 안찍고. 이게 뭔일인가? 보스니아의 모스타르에 도착해 여정을 풀었지만 내 여권엔 보스니아 입국 도장이 없다... 만일을 대비해 버스티켓을 보관해 두기로 했다.

저녁에 같은 호스텔에 묵고 있는 스위스 처자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지금 보스니아 들락날락 하는 데 도장이 없다고. 하긴, 현지인들은 여권 대신 아이디 카드를 내는 걸로 국경심사를 대신 하는 것을 보니 출입국 도장 찍는다는 개념이 발칸반도국들 사이에서는 희미한 건지.

모스타르에서 내리니 중년아줌마가 한국인이냐고 묻는다. 두브로브니크에서 실바 아줌마 전화를 받았던 리나 호스텔의 아줌마다. 우린 잠깐 구경하고 곧바로 사라예보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몸 상태가 너무나 안좋아서 일단 하루 쉬다 가기로 맘먹었다. 이를 연속 비를 맞으며 등산을 해서인지 어제 저녁부터 눈알이 빠져나갈 정도로 아프다가 오늘아침부터는 숨 쉬기만 해도 목이 따끔거리고 두통도 심해졌다. 차에서 잠을 청해 봐도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다. 목 감기에 된통 걸린 거다.

아줌마가 운영하는 리나호스텔에 짐 풀고 stari most(old bridge)를 보러 구시가로 갔다. 시가지에 자

동차 매연과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목을 심하게 찔렀다. 숨을 못 쉬겠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스타르 둘러보기

구시가는 여기 말로 stari grad(old city). 해석해 놓으면 별 것 아니지만 이곳 말로 하면 어감이 참 아름답다. 스타리모스트도 모스트가 '다리' 라는 뜻이니 단지 '옛 다리'라는 재미없는 의미다. 의미를 모르고 소리만으로 부르면 아름답기만 한데.

이곳, 모스타르는 가톨릭과 무슬림이 평화롭게 공존하였던 곳이고 가톨릭 구역과 무슬림 구역을 잇는 스타리모스트가 두 지역의 평화공존의 상징이 되었던 곳이다. 보스니아 전쟁 때도 두 진영이 힘을 합쳐 세르비아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중에 가톨릭인 크로아티아계가 무장을 하고 모스타르를 장악한 후 크로아티아 공화국과 병합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무슬림인 보스니아계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와 1993년 봄 내전에 돌입했다. 크로아티아 방위 평의회군이 이슬람 지역의 물자봉쇄를 위해 스타리모스트를 파괴하고 무슬림들을 학살하거나 추방했으며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누어 전쟁 후 도시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엄청난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이다. 도시 곳곳에 공동묘지가 소중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전쟁 때 파손된 많은 건물을 고치지 못하고 버려두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다행히 스타리모스트는 97년 나토평화유지군이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부서진 잔해를 수거하고 터키의 건축가들이 재조립하여 2004년 다시 재건되었으며 20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후 1993년의 참상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Don't forget 이란 표지석을 곳곳에 세우고 평화를 다짐하고 있다.

스타리모스트 옆 Crooked bridge 근처에 있는 모스크에서 점심 기도 드리는 의식을 함께 하며 전쟁 당시 무슬림들의 고통을 되새겨 보았다. 이곳에서 기도를 집전하는 중년남성과 점심기도 드리는 할머니들은 생생하게 그 시절의 참상을 기억하실텐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그 시절의 가해자들과 공존하고 계실까. 얼마나 깊은 신심으로 증오를 삭였을까.

사라예보

사라예보 가는 첫차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우리 배낭을 차 안으로 가지고 가 맨 뒷자리에 놓았다. 버스가 좀 낡은 편이었고 시트 몇 개는 고장 나 있었다. 나 어릴 때 시외버스가 이랬었는데. 나이 지긋한 차장이 검표하러 왔고 집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짐 검사 하지 않는 국내 노선기에 짐표를 안 붙여도 되나 보다.

버스가 좀 달려서 7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속속 올라타서 나중엔 버스의 절반정도 찼다. 여행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거의 출근차량이다.

사라예보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다. 거기에 줄곧 내린 눈으로 순백의 풍경이 계속 펼쳐진다. 어디에 서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될 듯한 풍경. 달리는 차 안이라 제대로 찍지는 못했다.

도시가 크다더니 트램이 다니는 광경을 보고도 30여분을 더 달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전철처럼 도시외곽까지 연결되어 있다. 버스에서 내리니 조금은 황량한 너른 공터다. 인포메이션에서 구도시인 바슈까르지야 가는 방법을 주워 듣고 트램을 타고 잠깐만에 구도시에 도착했다. 버스 터미널은 사라예보역과 붙어 있으며 트램1번을 타면 구시가인 바스카르지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트램 티켓은 은 1.6마르크인데 표 판매대에서 사면 그값이지만 차에 타서 기사에게 구입하면 1.8마르크로 오른다. 도시 대로를 따라 우리나라 청계천보다 약간 너른 운하가 뻗어 있고 운하 곳곳에 다리가 놓여 있다.

세르비아계 민족주의 조직인 '젊은 보스니아'단원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살해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던 라틴다리도 그 중 하나다. 바슈까르지야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숙소를 정하고 숙소에서 물어 터널박물관으로 향했다.

터널 박물관 (War tunnel 튜넬 스파사)

보스니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군이 43개월 동안이나 사라예보를 봉쇄하여 일체 물자의 공급을 차단하고 외곽에서 무차별폭격을 했었고, 사라예보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유엔군 주둔지역까지 땅굴을 파 물자를 공급받았다는 슬픈 역사가 얹힌 터널. 사라예보 공항 활주로 아래를 통과하게 만든, 총길이 730m의 터널은, 지금은 20여m만 공개하고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두었다.

트램 3번을 타고 종점인 ildiz에 내려 부트미르 가는 32번을 몰아서 탔다. 버스 안에서는 기사님께 부탁해 뒀다.

"플리즈 텔 미 옛 튜넬!"

말음을 여기 식으로 해야 알아듣는다. 마침 터널박물관 가는 길이 32번 종점이었고 부근 마을에 사는분이 함께 내려 길을 알려 주셨다. 혼자 왔으면 못 찾는다. 아무 표지판이 없으니.

박물관에 가니 한 분이 나와 먼저 비디오를 보고 터널에 들어 가 보고 박물관에 가라고 알려주셨다. 병커처럼 된 방, 총알통을 의자 삼아 앉아 사라예보봉쇄폭격 당시의 비디오를 시청했다. 이걸 광주항쟁 때의 시가보다 더 하다. UN의 제재로 사라예보 진격을 못하게 된 세르비아군이 사라예보를 둘러싼 산에 진지를 두고 시내로 포격을 하는 거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런 행위를 어떻게 43개월 동안이나 방치해둘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이성이 지배한다는 1990년대에 말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유엔의 맹점을 잘 알았던 세르비아 정부는 1991년~2008년에 걸친 유고슬라비아 전쟁

기간 동안 유엔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했던 거다.

터널은 사람 한명이 몸을 굽히고 들어가기 알맞은 크기다. 바닥에는 레일을 깔아 물자이동을 쉽게 했는데 비가 와 터널이 침수된 사진도 종종 보였다. 이 터널을 통해 550만kg의 음식물과 45만 리터의 연료가 사라예보로 공급되었다. 베트남의 구찌 터널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효과적인 게릴라전을 위한 터널이었지만 이곳은 순전히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터널이어서 더욱 가슴 아팠다. 돌아오는 길, 32번 버스 기사님은 아까 올때의 그분이다. 반갑게 인사드리고 시내로 들어왔다.

신발 밑창 쪽에 구멍이 났는지 물이 들어차 혹시나 신고 다닐 만한 신발이 있나 살펴 보려고 시내의 Alta 쇼핑몰에 가 봤지만 배낭여행자가 험히 쓸 물건은 없고 다들 비싸서 포기. 구시가지의 가죽신발 만드는 곳에서 수선할 수 있겠는지 물어 봤더니 안되겠다. 그리고 이른다.

"유즈 플라스틱 백"

나도 이런 생각 안해 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니 시도해 보기로 했다. 수면양말 신고 비닐봉지 감고 그 위에 양말을 신는다. 생각보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괜찮다. 비닐봉지 때문에 발에 땀이 차 발 짓는 건 매한가지였다 해도, 최소한 신발속 세균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지니 지저분한 발냄새는 덜 해진다.

바슈까르지야는 버스터미널(역 앞)에서 약 30분정도 걷는 거리에 있다. 트램 바슈까르지야정류장에 내리면 곧바로 이슬람식의 바자르가 시작되어 갖가지 공예품들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먹을거리로 발칸식 숯불구이와 케밥집이 많고 간간이 만든음식을 진열해 놓고 파는 식당들도 보인다. 바슈까르지야 광장의 카페 투넬Tunel에 들어가자 카페주인이 환대한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듯 커피 열댓세트(쟁반에 에스프레소나 터키커피포트와 물컵을 준비해 놓은것)가 바에 쌓여있다. 멋진 수염을 가른 주인은 들어온 사람들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끼리 두런두런이야기하고. 그 풍경 속에 들어간 우리. 무척 진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 한잔에 겨우 1마르크(0.5유로). 커피는 생필품 취급인지 어디서나 싸고 맛,향이 뛰어나다.

라틴 다리

보스니아를 통치하던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독립단청년이 황태자를 저격, 사망하게 한 곳. 1차로 수류탄을 황태자가 탄 차에 던졌으나 황태자가 그것을 재빨리 주워 밖으로 던져 죽음을 모면했지만 이 사건으로 수행원과 운전기사가 다쳐서 그들을 문병가는 중이 라틴다리에 잠시 멈춰 섰다 한다. 거사에 실패한 독립단청년이 마침 다리옆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황태자 일행을 보고 총으로 황태자를 저격했다.

이 사건이 1차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 청년은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베오그라드 가는 유로라인 버스

사라예보 터미널에 도착해 베오그라드 가는 차편이 있는지 알아보니 하루에 한편, 새벽6시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예보 동부 루카비차 터미널(스릅스카 공화국영토)에서만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릅스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세르비아계 자치공화국) 각지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는데. 다행히 사라예보 중앙터미널에서도 한 편 생겼다. 유로라인 협력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47마르크였다.

(시내에 있는 유로라인 사무소에서 예매하니 45마르크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8. 스르비아 베오그라드

스르비아 가는 길은 험준한 산악길이다. 2~30m에 달하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눈을 안고 즐비하다. '발칸'이란 말이 깊은 숲을 지칭한다더니 이런 숲이라면 낮에도 저녁 같을 거다. 이렇게 이국적이고 짙은 삼림은 처음이다. 세르비아 국경을 넘은지 한시간. 베오그라드행 버스이므로 국도를 달리는 것일 텐데 노면이 거친 구간이 30여분정도 계속되었다. 군데군데 이렇게 노면이 거친 곳이 있다. 벨그라드와 자그레브 간은 지도에도 드러나도록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라예보간의 도로는 작은 지방도로다.

베오그라드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지도를 보며 숙소를 찾아갔다. 지도상에 보이는 짧은 거리가 초행 길에는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눈이 왔는데 전혀 치우지 못한 듯 거리가 무척 질척인다. 거리 곳곳의 벽엔 스프레이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고 그 중 몇몇은 무척 예술적이기도 했다. 숙소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고 시설이 엄청나게 좋다. 사라예보 레지던스 호스텔의 멋진 세아드 아저씨가 자신 있게 소개할 만 한

숙소다. 일인당 15유로인데 할인하여 두명 25.2 유로에 묵는다.

숙소(sprit hostel) 스텝에게 버스와 트램을 탈 수 있는 버스플러스 카드에 대해 들었다. 빈 카드값은 60이고 한번 탈 때마다 70이니까 적절히 충전 해 쓰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가판대에 보니 숙소 스텝 설명과는 달리 두 종류의 카드가 있다. 250짜리와 40짜리. 이게 뭔지 몰라서 30여분 동안 영어 안되시는 가판대 아주머니와 지나가던 처자들 고생 좀 시켰다. 한 처자는 세르비아어로 열심히 몸짓 섞어 가며 설명했는데 얼마 정도는 이해가 된다. 40짜리는 10번 쓰면 삭! 끝난단 이야기지. 250짜리는 쪽 쓸 수 있던 이야기. 대강 그런 것 같지만 확신은 안된다. 영어가 좀되는 처자 한명이 또 와서 가르쳐 줬는데 확실치 않다. 하냥 시간만 가므로 일단 부딪혀 보자하고 40짜리 카드에 두개만 넣어달라고 (40+144=184)한 뒤 트램에 탔다. 아까 영어로 말해 주던 처자가 다가와서 쓰는 법을 자세히 일러 주었다. 트램 내부의 인식기에 카드를 찍 대고 사람 수를 2명으로 하니 남은 금액이 0으로 나온다. 옳거니! 일단 트램은 탔다. 사바성당 다녀 오는 길에 가판대에서 무작정 카드 내밀고 8!이라고 했더니 카드를 받아주고 충전해 주었다. 아, 충전되는 거구나.

저녁에 숙소에서 인터넷으로 버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우리 판단이 맞았다. 10번쓰고 버리는 종이 카드, 무제한 쓰는 플라스틱 카드.

일단 부다페스트 가는 차편을 알아보러 역에 들렀다. 하루에 두번 6:30과 21:45분에 있다. 밤차는 새벽 6시에 부다페스트 도착이라 하니 8시간 좀 넘게 가는 거다. 쿠셋(침대)을 같이 예약하는 게 좋으므로 포함해 알아 보니 한사람에 2650. 유로로는 24유로, 우리 돈으로 35000원정도. 8시간 이상을 가는 열차에 침대시트 포함이라기엔 무척 저렴하다. 가끔씩은 기차가 버스보다 낮군.

20여분을 걸어 사바성당에 왔다. 아직 건축중인 곳. 이스탄불 소피아 성당에 이어 두번째로 쳐 주는 성당이라 하며 베오그라드 시민들의 성금으로 계속 건축중이라고 한다. 성당에서부터 베오그라드 변화가를 따라 걸었다. 궁전이나 국회의사당은 볼 만하지만 쇼핑 거리에서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인데, 장터의 활기를 주는 노점도 없다. 노점이라곤 군밤장수가 전부. 거리에 서점이 비교적 많고 사진이나 회화전시회를 열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을 뿐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다. 유명한 보헤미안 거리라는 스카달리야도 겨울이라선지 인적이 드물고 활기가 없어 보였다.

숙소로 돌아 오는 길에는 소규모 상점이 모퉁이마다 있다. 대형점포의 분점에는 뻥한 물품들이 있지만 개인 식육점이나 구멍가게엔 대형매장에 없는 특이한 아이템이 있었다. 바로 자두 브랜드. 지역특산물이기도 하고 저렴한데다 목 넘김도 짜릿하다.

베오그라드

지도를 보며 길을 물어 가며 제문 가는 84번 정류장을 찾았다. 마치 버스터미널같이 여러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이 집결해 있다.

제문은 다뉴브강 가에 면한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이 초기 정착지라고 하며 오래된 건물들과 작은 골목길, 예쁜 탑, 성당들로 민속촌같은 느낌이 났다. 특히 재래시장에는 엄청난 야채, 과일, 견과류, 육류등을 팔고 있었고 생선을 튀겨서 파는 곳도 보였다. 특히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철판에 구워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가는 것을 봤다. 도심의 마켓들에서 극히 일부의 야채와 과일만 보면서 이곳 사람들 이런 재료로 뭘 만들어먹겠나 했는데 이곳에는 아욱, 상추등의 푸른 야채들까지 푸짐하다.

"아, 이정도면 먹고살 만 하겠네!"

제문에서 나와 강을 건너기 전 USCE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있어 제문 다녀오는 길 오후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지하는 거대 수퍼마켓이고 1~3층은 매장들과 푸드코트, 실내 놀이장이 겸해진 복합문화 공간이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엄청 복잡했고 삼성전자의 큰 깃발들이 매장을 뒤덮고 있다. 삼성 스마트기기를 시연해 보는 곳도 있어서 잠깐 앉아서 갤럭시 노트를 끄적거리려 봤다. 우리나라에서도 안하는 짓을 지구반대쪽에서 하게 되다니.

"근데 노트, 생각보다 필기하기 힘드네..."

이곳은 4시 반만 되면 벌써 어둑해진다. 다리 건너 사보나 정교회 앞 ? 카페에 들렀다. 주인이 '마이 프렌드~'하며 살갑게 반기며 카페 소개 책자 두 권을 선물이라며 내민다. 카페 안에선 엄마와 함께 아이가 식사를 하고, 정교회 수사가 아내와 열띤 토론을 하고, 여행자들이 짐을 두고 기차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세르비안 맥주 두잔을 시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꽤 여러 명의 여행자들이 들러 갔는데 아마 이곳이 여행객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나보다.

칼레메그단에 갔을 땐 6시밖에 안되었지만 캄캄한 밤이 되었다. 다리 쪽으로 보이는 야경이 무척 아름다웠고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공원 이곳저곳에 보였다. 나오는 문의 다리 아래로 대포와 탱크가 여러 대 전시되어 있는데 몇몇 포신이 다리쪽으로 향해 있어 대포에 겨누어지는 특이한 경험도 하게 된다.

숙소 들어가기 전 트램으로 한바퀴 돌아보기로 하고 2번 트램을 탔다. 대부분의 시가지 주요지역을 통과하는 순환선이라서 벨그라드 여행을 총정리하기에나, 힘든 다리를 쉬기에나 여러 모로 유익했다.

9. 오스트리아 비엔나

역 밖으로 나오니 온통 공사판이라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지도의 콜럼부스거리를 찾으려고 교차로를 몇 번씩이나 건넜다 돌아왔다 하며 실수를 반복하다가 세번째 시도에서 찾았다.

"교차로가 잘 나와야 인간 지피에스가 길을 잡는데 교차로가 이름이 안보이면 나도 몰라. -_-"

길 잡고 걸어가는데 자세히 보니 숙소 있는 위치가 변화한 보행자전용거리 옆인데다 메트로와도 무척 가깝다. 숙소 입지 참으로 좋네. 숙소에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어 방을 차올 동안 로비에서 인터넷하며 잠시 기다렸다. 첫눈에 보기에도 숙소가 깨끗하니 좋다. 침대에 쓰러져 모자란 잠을 채우다가 오후 1시에나 오늘 일정을 시작했다.

The Technisches Museum Wien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이곳의 위치를 찾으니 메트로 1호선 Karlsplatz역 부근이라고 표시한다. 그곳에는 과연 과학기술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기술박물관은 없다. 사람들에게 물어 봐도 모른다. 한 분 빼고는. 내가 보여주는 지도를 보시더니 여기는 아니란다. 오히려 3호선이나 4호선 타고 좀 나가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역 이름은 모르셨다.

비엔나 관광 앱에서 위치를 찾으니 과연, 이곳이 아니다. 1,3호선을 갈아타 가며 가장 가깝게 보이는 역에서 걸어갔는데 생각보다 멀다. 지친다. 길 찾는 내가 지칠 정도면 그냥 따라오는 마늘님은 얼마나 지칠까? 잠도 제대로 못잔 날에 고생만 외장창...4호선 쇠브룬 역에서 내리면 10분만 걸으면 되는데 3호선의 다른 역에 내려서 트램도 안오는 길로 걸은 게 또 30여분이다. 길 잘못들고 다시 걷고 해서 기술 박물관에 도착하기까지 두시간 걸렸다. 관람하기도 전에 진이 빠졌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국립과학관처럼 전시물과 조각물이 함께 있는데 전시물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엔진 섹션에서는 갖가지 엔진, 기관들과 더불어 대형 기관차를 몇 대 통째로 넣어 놓고 증기기관과 내열기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를 전시하고 있다. 비행기, 자동차 등의 섹션에서도 초기비행기와 초기자동차를 빠짐없이 전시한다. 아이들 손 잡고 어른들이 많이 왔고, 아이들이 떠들며 왁자하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쇠브룬 궁전 (메트로 4호선 쇠브룬역)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전이며 마리 앙트와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궁이다.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베르사이유 궁전을 보고 본따 지었다고 하지만 베르사이유의 화려함 보다는 정교하고 우아하며 검소한 면이 드러나는 궁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실질적인 마지막 황제였고 황태자를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잃었던 그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사용하던 모든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황제가 매일 집무를 보고, 신하와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어린 모차르트가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한 뒤 여황제의 목을 껴안고 뽀뽀를 했다던 그 방. 대부분의 방들이 모두 8~9평 정도의 작은 방이라 놀라웠다. 생각보다 검소한 모습. 한때 거의 전 유럽을 통치하다시피 했던 합스부르크가의 왕궁

이 이렇거나 아담하다니. 물론 방에 사용된 집기들이나 방 장식은 매우 정교하면서 하나하나가 그대로 예술작품일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전체 방 중 공개된 방은 40여개, 26개의 방을 돌아보는 임페리얼투어(10유로쯤), 전체 방을 돌아 보는 그랜드 투어(14유로 미만)가 있는데, 우린 임페리얼 투어를 선택했다. 26개의 방이라니. 멋지지만 지루할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 쾰른 궁전에선 한국어 오디오가이드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척 알차다!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 소개를 들으며 방을 구경하다 보니 한시간 정도가 후딱 지나갔다. 오디오 가이드에 들어 있는 내용 또한 마치 현지 가이드가 말해 주듯 여행자의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다. 어떤 오디오가이드의 경우 지나치게 학술적이라 듣기에 힘든데 여기 오디오 가이드는 남녀 두 명이 번갈아가며 방에 얹힌 이야기들을 해 주니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

훈테르바서 하우스 (트램 1번. 훈테르바서 하우스 정류장)

기묘한 구조의 창의적인 건축물. 현재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1층의 카페에서 집 구조를 설명해주는 비디오를 상영한다. 그리고 하우스 건너편 상점가는 훈테르바서 빌리지라 이름짓고 훈테르바서 하우스풍의 내부구조로 자그마한 상가들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슈테판 성당 (메트로 1,3번 슈테판플라쯔 역, 버스 A1번)

역에서 올라 서니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마치 레이스와 같은 장식이 가득한 거대한 첨탑. 카메라의 광각 렌즈에 담기지도 않는다. 너른 광장이 무색하리만큼 우뚝 솟은 첨탑과 대리석의 거대한 성당건축물. 건축물의 지붕 장식이 워낙 뻑뻑하여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지붕에 창을 거의 내지 못했다는 곳이다, 대리석 건물의 특징상 시간이 지나면 검게 퇴색되어 지금 한창 보수 중이었다. 성당 안에서는 미사가 집행 중이라 냉큼 자리를 잡고 앉아 분위기에 빠졌다. 엄청난 지붕 아래 흐르는 감미로운 낭송소리. 성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찌 이렇거나 아름다울까.

10. 체코 프라하

비엔나에서 프라하로 가는 방법

비엔나에서 프라하 가는 열차는 48유로. 그러나 한시간 거리인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27.2유로. 값 차이가 너무 난다. 비엔나에서 체코의 예쁜 민속도시인 체스키 크룸로프 로 가는 열차도 있지만 체코의 도시인 브루노, 체스키벨레니스, 체스키부데요비스를 거쳐 가고 두 번 갈아 타야 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다. 열차비도 38유로쯤 되고.

"우리, 브라티슬라바 가는 왕복표 있지 않아?"

"그 표 날짜가 쓸 수 있는 걸까?"

브라티슬라바에서 비엔나 올 때 역무원 언니가 왕복과 편도 값이 같으니 왕복으로 끊어 가라고 앵근 왕복 티켓. 티켓을 자세히 보니 오픈 티켓이다. 2월1일까지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프라하 가는 12시 경 열차를 타기 위해 비엔나 중앙역에서 10시 21분 열차를 탔다. 비엔나 중앙역까지 메트로를 타고 갔으니 쉽게 도착해야 하지만 중앙역 주변 이 너무나 미로처럼 복잡하여 한참을 헤맸다. 지하에서 열차도착상황판을 보니 우리 열차가 겹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인포메이션에 물었더니 여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란다. 위에는 중앙역이 있고 지하는 메트로라서 그런지? 1층으로 올라가서 비엔나 왔을 때 우리가 도착했던 곳 까지 가니 출발상황판에 브라티슬라바 행이 뜬다.

브라티슬라바 역에 11시 25분 도착하니 인산인해의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거지? 12시 13분 열차 표를 얼른 끊고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렸다. 열차 일부는 연착이고, 우리가 탈 베를린 가는 열차는 5분지각이래는데도 플랫폼이 안뜬다.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엉거주춤하니 화면만 보는 게 아마 베를린행 열차를 타러 온 사람들인가 보다. 열차표에 좌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리 많은 사람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나? 12시10분이 넘어가는데 아직 전광판에 열차 플랫폼이 안뜨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다. 겨울은 비수기라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이 구간(브라티슬라바-프라하-베를린)에서는 그 생각이 완전 뒤집어진다.

좀 있다 전광판에 1번 플랫폼이라고 뜨니 사람들이 물밀듯이 움직인다.

열차는 컴파트먼트 없는 일반 열차다. 사람들이 많지만 열차 객실은 한 사람이 두 자리 정도는 차지하고 갈 만큼 넉넉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인이 마주 보는 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2명 정도가 앉아 있으면 아예 앉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 앉아야 할 만큼 복잡해지기까지는.

4시간 정도 가는 동안 창 밖 풍경은 대체로 설경. 너른 벌판에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서 있는 동화같은 풍경도 자주 보인다. 윈도 배경화면으로 종종 나오는 설경에 나무 하나 집 하나. 바로 그런 장면이다.

12시 30분에 브라티슬라바를 출발한 열차는 5시 10분 경 프라하 역 (Hlavni nadrazi)에 도착했다. 플랫폼에서 지하도를 따라 역으로 나오니 오... 복잡복잡. 상가가 짝 펼쳐지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를 지경이다. 표지판도 어지럽고 열차 표를 끊는 카운터도 꽤 크다. 미리 숙소로 가는 메트로 라인을 알아두지 않았더라면 제법 정신 없이 복잡해 했을 것 같다.

어리버리하면서 HALL로 나와 보니 메트로 타는 곳이 보인다. 티켓 발권기 앞에서 또 한참 구경하다가 30분짜리 티켓이면 될 것 같아 발권하고 숙소인 Taurus hotel에 짐을 풀고 일단 시내를 둘러 보기 위해 호텔 매니저에게 물었다.

"캔 아이 고 투 시티 센터 바이 트램?"

메τρό를 이용하면 쉽게 구시가지(스타라메스토)에 갈 수 있지만 방향감각도 없고 시내에 대한 느낌 잡기도 쉽잖다. 처음 도시에 대해 감 잡는 데는 트램이 최고.

"젯 트램 넘버 11, 투 I.P.Pavloba 앤 체인지 투 넘버 22, 스톱 옛 Malostranske namesti. 'namesti' 민즈 플라짜. 데얼 이즈 Prazsky Hrad (프라하 성)"

"유 캔 이질리 리멤버 말로스트란스케 나메스티"

종이에 일일이 트램 넘버와 역 이름을 써 가며 설명해 준다. 특히 프라하성 가는 앞 광장인 말로스트란케 광장 이름은 금방 외울거라 한다. 호텔에서 만든 지도와 매니저가 써 준 역 이름 챙겨 들고 저녁 시내탐방에 나섰다.

11번 트램을 타고 뮤제엄(국립박물관)을 지나 이파 파블로바에 내려 22번으로 갈아탔다. 22번은 구시가지로 가로지르고 다리를 건너 프라하 성 아래를 지나 언덕 너머 프라하 성의 뒷편까지 가는 노선인데, 시내 구경하기엔 딱 좋은 노선이다. 게다가 메트로역에 비치된 메트로/트램/버스 노선도는 어찌나 직관적이고 정확하던지. 처음 가는 시내 구경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빙빙 돌다 들어왔다. 90분권을 끊어 후회없이 뱅뱅 돌다가 카를 다리도 건너 보고 80여분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일단 프라하, 감만 잡았다.

프라하 트램/지하철 타기

프라하 교통티켓은 트램, 지하철 공통 사용하며, 30분, 90분, 1일, 3일권 등등이 있다. 각각 24kc, 32kc, 110kc, 310kc.

표는 자동발매기에서 사거나 전철역, 트램역 주변의 담배가게 (TAVUK 이란 표시가 있다)에서 살 수 있다. 자동발매기는 동전만 들어가므로 불편하다.

표를 산 뒤 메트로 타는 곳이나 트램 안의 표 인식기에 표를 넣고 날짜와 시간을 찍으면 그 때부터 표의 효력이 시작된다. 일단 한 번 인식기에 찍으면 표에 정해진 시간 동안 메트로나 트램, 버스를 탈 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무척 편리하다.

지하철역에는 "Getting Around Prague" 란 제목의 트램/지하철노선도가 어디나 비치되어 있다. 이 노선도를 주머니에 챙겨 두고 갈 곳을 표시해 두면 프라하 여행 준비 끝~

기습적으로 표를 검사하는 검표원이 표를 확인할 때, 날짜가 찍히지 않은 표는 무임으로 간주하고 1000kc(55000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니 주의. 동양인, 그것도 배낭여행자는 한눈에 봐도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차적인 검사대상이 되니까.

11. 독일 드레스덴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길. 정말 오랜만에 푸른 하늘이 나왔다. 눈 쌓인 나무와 들판이 푸른 하늘을 만나니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국경을 통과할 때 국경검사를 했다. 버스 안의 여행객들은 대부분 의아해 하는 표정이다. 같은 EU국가인 체코에서 들어오는 건데 입국심사를 하다니? 헝가리와 체코, 오스트리아 입국시엔 없던 여권검사를 독일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 승객들의 여권을 자세히 관찰하고 출입국 도장들도 확인한다. 어떤 이의 여권은 사무실로 가져가서 확인 후 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여권은 펼쳐보고 스 얼굴 확인해 보고 그냥 돌려준다. 여행 중 우리나라 여권은 대부분 심사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보내 주는 경우가 흔하다. 위험 요소가 없다는 뜻이겠지. 스페인 입국할 때 기차 안에서는 반가워 하기까지 해 준다. 남에게 크게 해 끼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국력은 인정 받는 나라. 앞으로도 우리 나라가 이렇게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행하다 보면 각 나라 대사관을 지나치게 되는데 유독 철조망이나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곳이 있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미국이다. 지은 죄가 많으니 경호도 철통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일까. 우리 나라가 아무리 잘 나가게 되더라도 그런 꼴이 되지는 않기를 빈다.

프라하를 출발한 지 두시간 반쯤 지나 드레스덴의 중앙역(Hauptbahnhof)에 도착했다. 독일 여행할 때 Hbf 란 지명이 있으면 중앙역이란 뜻이란 걸 이번에 알았다. 버스터미널은 Busbahnhof 라고 한다. 드레스덴에는 따로 버스터미널이 있는 게 아니라 역 뒤 시티센터 빌딩 앞에 작은 버스 정차 표지판이 있는 게 전부다. 역 안에 있는 투어리스트 인포에서 숙소 위치를 물어 보고 지도랑 대중교통 안내도를 건네 받았다. 숙소 근처 트램정류장까지 가는 법도 친절히 알려 주었다. 숙소가 중앙역이랑 좀 멀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큰 문제 없었다. 그 외 인포에는 "Museums in dresden" 이란 책자가 마련되어 있는데 드레스덴의 여러 박물관의 전시물과 운영 시간, 입장료 등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드레스덴 산책은 포스트플라쯔(광장)에서 시작했다. 정류장 바로 옆으로 썬빙글이 있다. 박물관을 겸하고 있는데 건물과 정원만을 감상하려면 무료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정원 끝 정면쪽으로 왕관 모양의 건물이 보인다. 궁의 기둥 장식은 여러 포즈를 취하는 아기와 여신, 숲속의 정령 판들인 듯 한데 모두 밝거나 장난끼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특이했다. 기둥 장식에 옥수수과 같은 곡물이 주렁주렁 달리고 기둥을 받치는 정령들의 모습도 힘들다기보다는 즐거운 표정이다. 기둥 장식으로 이런 형태는 특이

하다. 건물 옥상으로도 올라가 차분히 정원을 감상할 수도 있는데 눈이 모두를 덮고 있는 겨울이라 정원이라는 느낌은 잘 받지 못했다. 신록 만발한 여름에 감상하면 더욱 멋질텐데.

프빙글의 북문으로 나오면 쾰퍼오페라 극장이 정면에 레지던스궁이 오른쪽에 보인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 너른 광장 가운데의 기마상.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니 이 곳 주인들의 위세가 느껴지는 듯하다. 오페라극장 맞은 편이 레지던스 궁을 지나치며 구경하고 도서관(Bibliothek)마당으로 들어갔다. 도서관 벽에는 각종 사슴 종류의 머리가 걸려져 있고 무척 다양한 모양의 문장이 표시되어 있다. 도서관 문을 나가니 바깥 벽엔 엄청난 벽화가 그려져 있다. 1100년대부터 18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의 행렬이 등장하며 도서관 안벽에서 보였던 문장이 바깥 벽 행렬하는 사람 위에 그려져 있다. 나중에 검색해 보니 이 벽화의 이름은 "군주들의 행렬"이며 작센지방을 통치했던 군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작센의 역사를 쭉 나열한 셈. 각 문장은 해당 군주 통치 시기에 사용했던 문장이라 한다. 준비 없이 갑작스레 온 드레스덴 여행이라 수박 겉핥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드레스덴 대중교통 이용

트램 정류장에 티켓 발권기가 있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티켓을 사고 트램에 올라타 티켓 검사기에 낱짜를 확인받으면 된다.

1회권은 2유로, 주간권(체크한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은 5.5유로, 야간권(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패밀리 주간권(6명까지, 14세 이상은 최대 2명까지)은 8유로다. 우리는 주간 티켓 두 장을 끊었는데 생각해 보니 패밀리 주간 티켓 하나면 될 텐데 잘 못 끊었지 싶다.

티켓 검사 시스템은 양심에 맡기는 형태인데 가끔씩 김표원이 온다고 하며 밤 8시 이후에 버스를 탈 땐 모든 티켓을 확인한다고 한다. (위키투레블 드레스덴 편)

드레스덴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 (버스)

드레스덴에서 베를린가는 열차는 많이 비쌌다. 54~78유로. (두명) 열차 편 수는 많지만 직통도 아닌 갈아타야 하는 열차도 28유로 정도 한다. 겨우 두시간 반 정도 가는데 열차로 가기엔 비용 지출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버스를 알아봤는데 유로라인 사이트에서는 버스가 없다고 나온다. 분명 어제 프라하에서 타고 왔건만. 매일 매일 차가 있기는 한데 차를 타려면 시간 맞춰서 직접 나가 버스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할 것 같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리니엔버스가 독일과 유럽 곳곳을 연결한다. 예매 사이트는 <http://berlinlinienbus.de> 이며 이곳에서 예매하고 이메일로 pdf형식의 티켓이 오면 그것을 인쇄하여 버스 기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보여 주는 것은 기사분이 잘 적응 하지 못하시는 듯 하다. 실

물 티켓을 사려면 중앙역(HauptBahnhof)의 티켓 안내소에 함께 설치된 여행 에이전시 데스크에서 구입하면 된다. 우리는 베를린으로 가는 표를 구하러 역에 갔었다. 차비 18유로에 예매수수료 3유로 하여 도합 21유로다. 가격이 비싸 놀라는 표정을 보이자 판매원은 직접 기사에게 사면 수수료 2유로를 기사에게 내야 한다고 말한다. 뭔가 처음 보는 시스템인데, 잘 이해는 안가지만 어쩔 수 있다.

드레스덴에는 버스터미널이 없다. HauptBahnhof 와 Bahnhof Neustadt 두 역에 시외/국제버스 정류장이 있을 뿐이다. 나름 대도시라고 생각했는데 버스터미널이 없다니? 이상했지만, '아, 우리나라 안양도 대도시지만 버스터미널이 없지?' 란 생각에 이르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12.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

드레스덴에서 두시간 정도를 달리니 베를린 쾰른공항에 도착했다. 독일 각지에서 다른 나라로 날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말 유용한 버스다. 우리가 31일 이스탄불로 날아갈 비행기도 여기서 가는데, 공항 구경을 미리 한 셈이다. 공항에서 도시고속도로를 타더니 도심으로 들어왔다. 12시 40분, 도시고속도로지만 도심은 많이 막힌다. 베를린의 버스정류장은 ICC ZOB 이라는 곳이다. 주변에 전철역으로 Messe Nord/ICC역, 지하철역으로 Kaiserdamm역이 있다.

베를린 시내교통

시내교통권은 A,B,C 3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A권역은 베를린 순환선 (링 트레인)의 안쪽 구간. 곧 시내중심권, B권역은 시 외곽, C권역은 시 근교권이다. 테겔공항(TXL)은 B권역에 속하며 근교의 포츠담이나 쾰른공항(SXF)은 C권역에 속한다.

교통수단은 버스, 트램, 지상전철(SBahn), 지하철(UBahn), 교외선(RE)이 있으며 모든 교통수단의 티켓은 한가지다. 지상전철역을 찾으려면 S표지판을 찾으시면 되고 지하철은 U표지판을 찾으시면 된다.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는 H표지판이 서 있고, 정차하는 버스나 트램이 표시되어 있다.

티켓은 1회권, 데이 티켓(오늘~내일새벽3시까지), 여행자용 48시간 티켓, 여행자용 72시간 티켓 등이 있고 AB권역만 다닐 수 있는 경우와 ABC권역을 모두 다니는 경우의 티켓이 다르므로 어느 곳으로 갈 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티켓을 끊어야 한다. 우리는 베를린 시내와 포츠담, 쾰른공항을 모두 가야 하므로 여행자용 ABC권역용 48시간권을 끊었다. (1인당 20.5유로)

여행자용 티켓은 베를린 웰컴카드라 하며 버스터미널이나 역의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티켓을 구입하면 베를린 웰컴 카드 책자와 시내지도/대중교통지도를 준다. 박물관이나 놀이시설, 식당 등의 할인

혜택이 있다.

아래는 여행자용 티켓인 웰컴베를린 카드 소개 책자의 티켓관련 내용이다.

[여행자용 AB권역 티켓은 어른 한명과 6세 미만 어린이 몇 명이든 탈 수 있으며 여행자용 ABC권역 티켓은 어른 한 명과 15세 미만의 청소년 세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자용 티켓은 어린이가 있는 유모차, 큰 짐과 개를 동반할 수도 있다. 만일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려면 자전거 티켓을 따로 끊어야 한다.]

할인 혜택이 없는 순수 교통카드는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AB권역 1일권 (구입한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은 6.5유로, ABC권역 1일권은 7유로다.

베를린 중앙역

지하 2층 지상 3층의 대규모 역이다. 지하 2층은 지역열차(RE)발착장, 지상3층은 지상전철(Sbahn), 일반열차(EC,ICE)발착장이며 지하1층~지상1층은 대규모 아케이드다. 역이 남북으로 무척 긴 모양이고 남북면이 대칭이라 방향감각 잡기에 어렵다. 도심으로 가는 m41버스 정류장은 북쪽 출구쪽에 있고 브란덴부르크문과 분데스탁은 남쪽 출구 방향에 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한블록 아래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있다. 높이가 각기 다른 관 모양의 구조물이 광장을 가로질러 엄청나게 조성되어 있다. 사람 키를 넘는 것도 있어 안으로 들어가면 같이 온 일행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 같다. 미로가 아니라 일정하게 열지어 있어 길을 잃을 일은 없지만 동료는 잃어버릴 수 있다.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의 암담한 삶을 비유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겠지.

'출구는 멀리에 뻗히 보이지만 어떤 방향이 맞을 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동료와 조금만 멀어지면 소리는 들리지만 동료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치 않은 막막함이 느껴지는 구조물이다. 눈이 열었다 녹은 탓에 바닥이 미끄러워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만일 구조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면 온전히 그 불안을 느낄 수 있었겠지.

포츠담

"베를린 옆에 포츠담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2차대전 일본의 처리에 대한 선언이 있었던 도시, 포츠담. 들어 본 건 있어서 마침 베를린 옆이라 가 볼까 했다.

"포츠담 선언 했다고 거기 갈 거면, 알타도 가야 되는 거니?"

물론 포츠담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할 말은 없었지만.

대중교통지도에 보니 포츠담이 C권역이라 우리가 가진 티켓으로 무료다. 게다가 포츠담 내 대중교통 역시 무료라고 한다. 한번 안 가볼 수 있나.

중앙역에서 포츠담은 S7 전철 한번에 가는 도시다. 종점이기도 하고. 중앙역에서 대략 25분 정도 걸렸다. 사람이 많이 탔다가 도시외곽으로 빠지는 Zoologischer 역부터는 한산해지더니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주변 풍경은 영락없는 시골 마을 풍경이 계속되다가 포츠담에 가까워지자 다시 사람이 많아진다. 포츠담 역에 내려 인포메이션에 갔더니 지도를 0.5유로에 판다. 안사고 대신 질문을 했다.

"웨어 두 유 서제스트 투 고?"

"브란덴부르크 문, 시티 센터, 올드시티 구역..." 지도를 짚어 가며 이런 저런 말을 해 주는 데 반을 알아듣고 반은 넘어간다. 일단 정보 없이, 지도 없이 움직이기로 했다.

전철 타는 곳으로 나가다 보니 포츠담 파노라마라는 전시물이 역 안 한 편을 차지하고 있다. 포츠담의 모습을 대략 짐작하게 해 주는 유용한 정보였다. 바깥으로 나와 일단 다가오는 트램91번을 타고 시내로 들어갔다. 트램 타며 시내를 살피다가 적당히 내려 어디로 가야할 지 고민해 봤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Belvedere 에 가 볼까?'

주변의 처자에게 물었다.

"트램 타고 두 정거장 간 뒤 603번 버스 타고... 어디어디 내리세요"

"아, 거기서 걸어 올라가는 거죠?"

지도를 보니 언덕이더라.

"그렇습니다"

이곳은 베를린과 달리 트램 속에서 영어 안내가 나왔다. 갈아타는 정류장을 지날 땐 매우 자세히 안내 준다. 두 정거장 지나 603번 타는 곳에 오니 15분 뒤에 온다고 표시되어 있길래 건너편에 보이는 큰 성당 앞으로 잠시 걸어 봤다.

아무 계획 없이 온 포츠담. 준비 없이 순수 여행자 느낌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트램을 타고 다녀보는 것도 여유롭다. 어딘 줄 알면 정류장이나 지도 확인하느라 분주할텐데 정처가 없었으니 차분히 시내를 바라 볼 여유가 생긴 거다. 603번은 주택가를 구불구불 올라 간다. 우리 목적지는 603번의 종점. 언덕 위로 올라 와 있는 집들은 거의 번듯하고 마당도 넓다. 말 그대로 엽 타운. 꽤 사시는 분들인 것 같다. 버스에서 내려 한가롭고 조용하게 Belvedere 까지 산책을 겸해 다녔다.

Belvedere 앞 마당에는 정원수를 길가에 일정하게 심은 후 사람 키 정도로 잘라 철근을 박아 아치형

으로 터널을 만든 정원이 신기하다. 기둥역할을 하는 나무들은 죽었으려니. 기둥 사이에 자라는 나무는 아치에 맞도록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듯, 꽤 두꺼운 가지까지 아치에 맞게 구부러져 있다.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에 엄청나게 손이 많이 들 모양새다. 제 마음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들이 안쓰럽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은 예술적이다. 여름에 왔더라면 비를 피할 정도로 뻑뻑한 나무의 터널이 만들어져 있었겠지. 마침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다 잠시 쉬고 계셨다.

오늘은 개관을 하지 않는 날. 하지만 개관한다 해도 유물 약간을 보는 것 더하기 계단을 올라 건물 위에서 포츠담시 전망을 하는 것이 전부일테니 오히려 개관하지 않는 날이 더욱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건축물의 존재를 느껴보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한다.

포츠담 역

역사 안에 ASIA GOURMET 라는 패스트푸드점 체인이 있어 크리스피 치킨에 면이 곁들여진 음식을 시켰다. 10대들이 엄청 와서 줄 설 정도로 잘 되는 집이고 지역 주민들도 꽤 와서 먹는 집인데, 음식이 지나치게 짜다. 향을 느껴보기보다 짠 맛이 우선 느껴진다. 아시아 음식이 이렇지만은 않은데..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생길라. 여행 말미에 중국식당에 가는 일이 잦아졌는데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식을 짜게 해 아쉬웠다.

역 안에 대형 할인점이 있고 저가의 물건도 무척 많다. 베를린 중앙역에 있는 수퍼마켓이 중산층 용이라면 이곳은 저소득층 용이라 해도 될 것 같다. 비교적 저렴한 오렌지(1.5유로/kg)들도 많고 야채도 무척 풍성하다. 특히 술 코너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스피릿들, 크림들, 보드카, 맥주, 저알콜 음료 등 술 코너만 작은 수퍼마켓 크기다. 이 많은 술을 다 먹고 사나 몰라.

DDR박물관 (6유로, 9-20시)

DDR은 도이치 민주 공화국(동독)의 약자다. 이제는 사라진 나라 동독. 그의 추억을 유물과 소품들로 살펴보는 곳이다. 베를린 장벽이 단순한 벽이 아니라 동베를린 동독 가정의 응접실에도 앉아 보고, 화장실 구경도 하고 취조실에 앉아 보기도 하고 외교관용 볼보 승용차에 타 보기도 한다. 주로 체험위주로 짜여진 박물관이라 흥미롭지만 박물관 내부가 고작 두 개의 방에 불과하여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곳이다.

베를린 분단선

광장에 베를린 장벽의 조각들이 세워져 있고 동독병사로 분장한 이가 동베를린 비자 도장을 찍어 주

고 돈을 받고 있다. 장벽이 세워졌던 길을 따라 붉은 벽돌이 길에 박혀 있다. 지금은 마치 주차선처럼 그 위로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분단선이라니. 분단선을 따라 가면 일부 장벽이 남아 있는 곳에 토포그래픽 오브 테러 라는 기념관이 있다. (나치의 등장부터 패망까지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담담하게 사진과 설명으로 전시해 둔 곳이다. 당시 인물들의 생생한 사진들.

멋진 제복을 입고 뿔내는 SS친위대들, 히틀러, 히믈러, 라이히 등 나치 핵심 인물들의 피안대소. 숙청되어 살해된 독일 내 반 나치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 유대인들. 순진한 얼굴의 나치독일의 병사들. 나치의 역사는 특별한 괴물이나 악당의 역사가 아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음직한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신념에 따라 행한 일들이 엄청난 역사적 반동이 되었던 거다. 핵심 인물들이야 악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이 히틀러 거수경례를 일제히 보내는 저 시민들, 저 병사들은 과연 악인이었을까.

그렇기때문에 더욱 무시무시해지는 거다.

계속 분단선을 따라 가면 동서베를린의 유일한 교통로였던 체크포인트 찰리에 이른다. 아마 이곳이 최대의 분단 관광지인 듯 하다. 시끌벅적하니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각종 전시들이 주변에서 진행 중이다. 체크포인트였던 곳에는 병사 복장을 한 사람이 초소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단체 관광객의 버스가 즐비하게 지나간다. 분단이 과거의 일이 된 사람들. 그래서 분단된 과거를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 부럽다.

유대 박물관 (5유로, 9-20시)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독일 내 유대인들의 처지를 상징하면서 지었다고 한다. 건물의 동선이 독특하고 전시장 1층의 바닥구조가 독특하여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1층에는 유대 민족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관, 나찌 치하 유대인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2,3층은 유대 문화의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조작할 수 있는 전시물들도 많아 단조로움을 떨지만 전시물이 무척 방대하고 동선이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어 피곤함을 많이 느꼈다.

분단과 나치, 유대박물관등을 둘러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서 말했듯, 지구상에 여러 학살의 가해자는 많지만 사과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사과하며 그 사과하는 태도를 수도 베를린 심장부에 구조물로, 기념관으로 명시한다. 이 사과로 인해 독일이 다른 족속에 비해 더욱 양심적일 것인가.

혹시 그 사과의 배후에 힘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지구상 학살의 피해자 중 현재 사회 권력의 주류는 있는가? 없다.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피해자였으며 현재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힘의 주류다. 중국 조차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권력의 주류가 아니지만,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유대인들은 분명 권력의 주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독일 사과의 근저에 깔린 것이 아닐까.

